

전주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나서

전주시가 국제적인 명품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관광택시 운행과 다국어안내서비스 제공 등 한층 강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기로 했다.

전주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품격 높은 전주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광택시 도입과 다국어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외국어 관광해설사 양성, 해외 홍보 강화 등 '글로벌 브랜드마켓 3.0 플랜'을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전주시 전역에 흩어져있는 관광명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택시 조합 등과의 협의를 거쳐 관광택시를 도입할 계획이다.

관광택시는 내년 4월부터 약 20대 정도 운영되며, 전주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콜택시 업체를 통해

관광택시 운행 · 다국어 안내서비스 제공기로

사전에 예약을 신청하면 관광택시가 배차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광택시 운행은 전주시 친절택시기사 표창을 수상한 기사 등 일정기간의 관광택시 교육과정을 이수한 택시기사가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택시 조합과 요금체계 등 관광택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세계 배낭여행자들의 바이블로 불리는 여행잡지인 톤리플래닛의 아시아 관광명소 3위 선정과 내년 5월 개막하는 FIFA U-20월드컵 등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전주를 찾을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등 주요언어로만 제작된 관광안내시스템을 다양화해 다른 언어권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관광안내서비스를 활용해 전주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전주역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한옥마을, 오목대 등 관광안내소를 외국인 관광안내와 관광상담, 해설투어를 할 수 있는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안내소 정비 계획을 세우고 무선관광안내시스템 도입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또, 최근 들어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권에서도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난에 따라 다국어 관광안내판에

스페인어 등 유럽지역 언어도 추가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시는 현재 전주시 주요관광명소에 배치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문교육을 통한 외국어 관광해설사 양성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해외홍보 및 관광마케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안내서비스 개선과 해외홍보마케팅 등 전주 관광 브랜드마켓 3.0 플랜 추진을 위해 올해 관광안내서비스에 대한 기반시설을 점검하고,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U-20월드컵 등을 겨냥한 본격적인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 에너지전환 시민포럼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위한 전주에너지전환 시민포럼이 6일 전주 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사 무더기 적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종합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제약사 19곳 적발 업체 직원 오모(46)씨 등 4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4년 간 의약품 선점과 처방을 대가로 도내 한 종합병원 등에 1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

무허가 조업 중국어선 검거

우리 해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5일 저녁 10시5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37km 해상에서 100t급 중국어선 1척(중국 석도선적, 승선원 11명)을 EEZ 어업법 위반(무허가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EEZ에 진입한 중국어선은 90여척으로 쌍타망(쌍끌이) 그물을 이용해 조업에 나섰다. 출동한 경비함에 의해 EEZ 외측 해상으로 물러갔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에 불응하고 계속 조업을 감행하다 검문검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중국어선 50여척이 우리 측 EEZ에서 조업을 시도하다 출동한 해경에 의해 퇴거하는 등 해경이 검문검색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문정근 기자

익산 반려견 취식 “처벌하라”

게시된 지 3일도 안돼 1만여 명 서명 동참

인터넷 온라인에서는 최근 익산에서 발생한 애완견 취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난 3일 '전북익산 실종 반려견 잡아먹은 주민들 강력 처벌 바란다'는 제목으로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했다. 지난 달 26일 익산에서 울드 임클리쉬 쉽 '하트'라는 이름의 반려견이 실종된 후 인근 지역 주민에게 잡아먹혀 당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3일도 지나지 않아 이미 1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 할 만큼 애견인들의 공분을 얻고 있다.

현재 6일 오후 2시 기준 서명인원은 1만6,520명을 기록하며 많은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해당 청원 게시자는 "가해자들은 주인이 실종권을 애타게 찾고 있

고, 경찰수사 중에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떠난 뒤 잡아먹는 경악스러운 일을 저질렀으며 아직 우리나라는 반려 동물에 관한 처벌이 약해 딱히 처벌 방법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이는 마을에서 일어난 가벼운 횡령, 훼손죄가 아닌 하나의 생명을 해친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원에 서명한 네티즌들 역시 "제발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 달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 키우기 힘들다"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편 현재 청원 게시자는 '탄원서가 익명성일 경우 큰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참고해 구글로도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고민형 기자

“바이오뷰티 융복합산업 선점음”

전주시, 지역 화장품기업 대표와 간담회 개최
바이오뷰티산업 거점개발센터 구축 방안 모색

전주시가 지역 바이오뷰티(바이오기술+뷰티산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가능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화장품 제조기업 등 뷰티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섰다.

전주시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6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유강열 연구원장, 지역 뷰티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스킨케어와 에센스, 마스크팩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수출하는 전문화장품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또, 기업의 애로 해결방안 및 지원 대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 시장은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으로부터 바이오뷰티산업의 현황과 전주시민의 차별화된 강점, 미래전략산업으로의 뷰티산업 선점 필요성 및 연구원의 역할, 바이오뷰티개발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원의 지원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보건소, 임산부의 날 캠페인 전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6일 풍남문 광장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임산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임신기간 10개월과 풍요와 수확의 달 10월을 의미하는 10월 10일 '제11회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전주시보건소가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받는 모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태아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보건소는 이날 풍남문 광장을 지나 는 전주시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

로 임산부 영양상담 및 임산부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각종 모자건강사업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알검진 수검을 향상을 위한 홍보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캠페인에는 전주 직장맘 고충상담소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임산부 및 아이의 건강과 일하는 여성의 권리를 시민들에게 알렸다.

전주시보건소는 모자건강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넷째아 이상 육아용품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등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자건강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임산부가 배려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신과 출산, 양육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63-281-6280~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